

자료 2024-07-05 / SINCE 1990~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 Challenge) 동참



광주은행은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 저감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 Challenge)’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 Challenge)’는 범국민적 실천 운동을 통해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환경부가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표 또는 일반 국민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 약속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실천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며,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 ◆ 여름맛이 하하하(夏夏夏) 이벤트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8일까지 ‘KJ카드와 함께하는 여름맛이 하하하(夏夏夏)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가지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응모가 필수이며,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50만원권) ▲네이버페이 모바일 쿠폰(5만원권) ▲GS칼텍스 모바일 쿠폰(3만원권) ▲신세계 모바일 쿠폰(3만원

권)을 제공한다.

광주은행 유동구 카드사업부장은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및 상품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신세계

### ◆ 대학생 현장실습 확대로 인재육성 힘쓴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올해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면서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8일부터 7월25일까지 한달 간 선발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진로탐색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현장실습 2회를 진행한 후 학생들의 호응이 높아 전남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참여 학생들은 백화점 매장업무에 투입돼 현장에서 고객들을 직접 응대하는 등 현장감 있는 실무경험을 쌓고 인사, 총무, 경리부터 마케팅 전반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에 대해 알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회사는 대학생의 신선한 생각을 얻고 대학생은 경험과 기회를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현지법인으로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추후 지역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광주순환

### ◆ 록수장학회 장학금 1천만원 후원



금년에도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대표이사 이영훈)는 6월 18일 (재)록수장학회(이사장 김봉길)에 장학기금 1천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장학금은 록수장학회에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50명의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 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영훈 대표이사는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전



달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 사랑의 제빵 나눔 후원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대표이사 이영훈)는 6월 29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 빵 나눔터에서 서구 아동그룹홈과 함께하는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순환도로(소태·송암) 임직원은 그룹홈 5개소 아이들 20명과 함께 직접 정성스럽게 만든 소금빵과 머핀 12

박스를 음료 300개와 같이 서구 아동그룹홈에 전달했다.

이영훈 대표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과 함께 맛있고 건강한 빵을 만들게 되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아 성장해 온 만큼 앞으로도 수익의 일부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대학교병원

### ◆ 정신 전남대병원장 "새 병원 건립,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핵심"



정신 병원장은 제34대 전남대병원장 취임 6개월 차를 맞아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거점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정도로 키우겠다는 정책에 적극 찬성한다. 광주·전남 지역 거점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 신축 비용도 정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병원장 취임 100여일을 맞아 낸 소감문에서 "새 병원 건립은 거점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게 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하기에 병동 신축 비용 7000억원 전액을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 지원에 대한 커진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 한전KDN

### ◆ 전문 솔루션·서비스기업과 'K-ECP 파트너십' 협약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6월 28일 서울 송파구 소재 대한소방공제회관에서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인 K-ECP(KDN Energy Cloud Platform)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솔루션파트너 제휴사 6개사와 서비스파트너 제휴사 1개 업체 대표자를 포함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여 솔루션·서비스 파트너사에 대한 소개와 협약 서명 및 간담회와 오찬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전KDN 관계자는 “에너지 공공분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은 미래 에너지 산업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다”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의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서비스에 민간 기술을 더한 시너지로 공공 클라우드 산업을 선도하고 동반상생을 통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우수협력사와 상생 방안 간담회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25일 나주혁신도시 소재 웨스턴 호텔 행사장에서 ‘2024년도 우수협력사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현 한전KDN 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선정된 우수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우수협력사 선정 경과보고와 인증서, 인증패

수여, 오찬과 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전KDN은 이들 우수협력사에게 기존의 ▲1년간 계약이행 보증수수료 지원 ▲1년간 인지세 지원 ▲동반성장물 포인트 지급 등에 더해 ▲해외판로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등의 혜택을 추가했다. 한전KDN 사보, 홈페이지와 사내매체 등을 통해 우수협력사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한전KDN이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수협력사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이라는 비전에 부합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발굴 등 신사업 개발을 선도하고 협력사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해 동반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전KPS

### ◆ 협력사와 상생 동반성장 앞장



발전·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협력사와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 27일 본사 빚가람홀에서 협력회사 품질협력회사 품질담당자 100여명을 초청

담당자 100여명을 초청해 ‘2024년 중소기업 품질보증교육’을 실시했다.

실제 교육내용은 △ISO9001:2015 규격과 KEPIC QAP-1 원자력 품질보증기준 △협력회사 등록 품질평가 기준과 절차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관리 정책과 기업별 적용방안 △한전KPS 안전활동 수준평가 BP 사례 △한전KPS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찾아가는 굿파트너 청렴 컨설팅 등 정비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참여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발전설비 정비 서비스 품질을 높여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 청렴옴부즈만과 함께 청렴문화 정착에 힘 모은다

발전·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25일 전남 나주시 다도면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이성규 상임감사를 비롯한 감사실 관계자 및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옴부즈만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자체청렴도 조사 결과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청렴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청렴도 향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내부 고발 및 신고 시스템의 신뢰도가 높아져 부패 경험이 감소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한전KPS 이성규 상임감사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수

렴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청렴한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확고하게 인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수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 <제1654회 금요조찬 포럼>

### 병아리 10마리의 신화, 그 기업가 정신과 경영리더십

(이강수 부회장)

1654회 금요조찬포럼은 前하림그룹 이강수 부회장을 초청하여 「병아리 10마리의 신화, 그 기업가 정신과 경영리더십」를 주제로 기업가 정신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많은 사업가 창업을 할 때 매일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고, 보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업을 일궈 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자리 잡으면 변화의 파도를 넘기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의 성장은 멈추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하림그룹 창업주인 김홍국 회장이 11살 처음 병아리 10마리를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양계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닭값이 비싸면 모두가 닭을 키워서 팔아 축산 파동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다들 양계장이 부도나고 야반도주할 때 김홍섭 회장은 미국 축산업 관련 강연을 듣습니다.

당시 선진국에서는 양계-가공-유통을 한 기업에서 하고 있었으며, 핵심은 양계 닭 가격이 떨어져도 최종 유통 단계인 닭고기 가격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사업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축산-가공-유통 구조의 하림그룹을 만들어 냅니다. 만약 당시 다른 양계업자들과 같이 계속 양계업만 했다면 오늘의 하림그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1%의 가능성에도 도전했던 결과가 하림그룹이라는 대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하림그룹이 대기업을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경영철학은

1. 기본과 상식에 충실한다.

- 성공 비결, 그것은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서 배운 기본과 상식을 실천하는 것이다.

2. 리더는 멀리 깊이 보고 달리 본다

- 경영의 판단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정의하고 창의력을 발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3. 단순함을 추구한다

- 단순함은 군더더기가 없는 본질로 생산성 구현의 핵심이다.

4. 위기를 건디면 기회가 온다.

-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

5. 15도 비탈길을 궁리하면서 올라간다

- 급한 경사를 장기간 오르면 벅차다. 15도 정도의 완만한 비탈길을 꾸준히 오르는 것이 목표를 이루는 길이다.

하림그룹 김홍섭 회장은“처음부터 대기업이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단지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기도 성공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목표에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니 여기에 이르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자에게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1%의 가능성만 보여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광주 경총 대표님들께서도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 번창 하시기 바랍니다.



## 1. 경제 동향

### ◆ 경총,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 발표 (6.19)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이 69.5%(이직계획자)로 집계됐고, 이직계획자의 61.5%는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이직 계획 여부)** 응답자의 69.5%가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답했고(이직계획자),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30.5%로 집계. 특히, 20대 응답자의 83.2%, 30대 응답자의 72.6%가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계획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이직계획자 비중: [20대] 83.2% > [30대] 72.6% > [40대] 58.2%

- ② **(이직 고려 사유)** 이직계획자\*의 이직 고려 사유는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았음. 그 외 응답은 ‘과도한 업무량’ 32.7%, ‘기대보다 낮은 평가’ 27.4%, ‘회사 실적 부진 등 미래에 대한 불안’ 26.6%, ‘개인적 성장을 위해’ 25.7% 순으로 조사(복수 응답)

\*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근로자(응답자의 69.5%)

- ③ **(과거 이직 경험)** 응답자의 67.8%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이직 유경험자), ‘현재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이라는 응답은 32.2%로 집계. 이직 유경험자의 이직 횟수는 평균 2.8회로 집계되었고, 이직 유경험자 중 ‘3회 이상’ 이직을 경험한 비중이 47.1%로 높았음. 이직 유경험자에게 과거 이직 성공 요인을 묻은 결과, ‘직무 관련 경력’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음.

※ 이직 유경험자의 이직 횟수 응답률(%) : [1회] 26.7 [2회] 26.2 [3회 이상] 47.1

- ④ **(이직에 대한 가치관)** 개인에게 있어 이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묻은 결과, ‘연봉 인상 수단’이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적 성장 기회’라는 응답이 31.8%, ‘역량 검증 수단’이라는 응답이 12.3% 순으로 집계

- ⑤ **(이직 후 임금 조정 현황)** 이직 유경험자\*의 68.5%가 현 직장으로 이직하기 직전 직장보다 높은 연봉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직장 연봉과 비교해 ‘1~10% 상승’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고, ‘11~30% 상승’이라는 응답은 27.0%, ‘30% 초과 상승’이라는 응답은 7.7%로 집계. 반면, 이직 유경험자의 31.5%는 ‘이전 직장과의 연봉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답변

\*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응답자의 67.8%)



###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발표 (6.26)

- 2024년 1/4분기 말 기업 대출은 1,866.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 증가
  - ※ 기업 대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10.3('23.1q)→ 7.8(2q)→ 6.3(3q)→ 5.2(4q)→ 5.2('24.1q)
- (기업규모별) 대기업대출(289.8조원,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은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 중소기업 대출(1,571.0조원, 전년동기대비 3.8% 증가)은 높은 신용위험, 부동산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모두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 대기업대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16.7('23.1q)→ 16.5(2q)→ 14.5(3q)→ 11.3(4q)→ 11.9('24.1q)
  -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9.3('23.1q)→ 6.2(2q)→ 4.8(3q)→ 4.1(4q)→ 3.8('24.1q)
  - \*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율 변화(전년동기대비) :  
[중소법인] '23.1분기 10.1%→ '24.1분기 4.2%, [개인사업자] '23.1분기 8.3%→ '24.1분기 3.4%
- 2023년말 기준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84.6%로 2022년말(85.8%)대비 1.2%p 하락했고, 2023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2.0배로 2022년(5.1배) 대비 하락
-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대기업('22년말 87.3%→'23년말 86.0%)과 중소기업('22년말 59.0%→'23년말 54.9%)의 부채비율이 모두 하락
-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대기업('22년 5.4배→'23년 2.1배)과 중소기업('22년 1.0배→'23년 0.1배)의 이자보상배율이 모두 하락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2022년말 37.5%에서 2023년말 41.4%로 상승
- (기업규모별) 기업규모별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대기업('22년말 23.3%→'23년말 29.2%)과 중소기업('22년말 49.8%→'23년말 55.2%) 모두 상승

### ◆ 기획재정부, 「2024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6.21)

- 2024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국내→해외, 총투자액 기준)은 150.9억달러로 전년동기(176.8억달러) 대비 14.6% 하락
  - ※ 분기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억달러) : 176.8('23.1q)→ 159.8(2q)→ 150.5(3q)→ 157.7(4q)→ 150.9('24.1q)

- (업종별) 광업( $\Delta 46.4\%$ ), 제조업( $\Delta 35.9\%$ ), 금융보험업( $\Delta 17.8\%$ ) 등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부동산업( $177.3\%$ ), 전문과학기술업( $156.9\%$ ) 등 주요업종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 (지역별) 아프리카( $773.5\%$ ), 중동( $616.9\%$ ), 대양주( $353.0\%$ ), 유럽( $58.2\%$ ) 등 지역은 해외직접투자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중남미( $\Delta 39.6\%$ ), 북미( $\Delta 31.0\%$ ), 아시아( $\Delta 9.7\%$ ) 등 지역은 전년동기대비 감소
- (국가별) 저지\*( $3,236.4\%$ ), 룩셈부르크( $71.8\%$ ), 베트남( $47.4\%$ ) 등 국가는 해외직접투자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케이맨제도( $\Delta 16.2\%$ ), 미국( $\Delta 29.8\%$ ) 등 국가는 전년동기대비 감소

\* 저지(Jersey) 섬 :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해협에 위치한 영국령 조세회피처

#### ◆ 한국은행, '2024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6.21)

- 2024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농림수산물( $\Delta 4.0\%$ )이 내렸으나 서비스( $0.5\%$ )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기준으로 '23년 12월( $0.1\%$ )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전월비) :  $0.5('24.1) \rightarrow 0.3(2) \rightarrow 0.2(3) \rightarrow 0.3(4) \rightarrow 0.1(5)$
  - ※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3년 8월( $0.9\%$ )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1.3('24.1) \rightarrow 1.4(2) \rightarrow 1.5(3) \rightarrow 1.9(4) \rightarrow 2.3(5)$
- (농림수산물) 농산물( $\Delta 7.5\%$ ), 축산물( $\Delta 1.3\%$ )이 내려 전월대비  $4.0\%$  하락(전년동월대비  $5.4\%$  상승)
- (공산품) 1차 금속제품( $1.3\%$ ) 등이 올랐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 $\Delta 3.5\%$ ) 등이 내려 전월대비 보합(전년동월대비  $1.9\%$  상승)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산업용도시가스( $5.3\%$ ) 등이 올라 전월대비  $0.5\%$  상승(전년동월대비  $3.9\%$  상승)
-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2.4\%$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2\%$ ) 등이 올라 전월대비  $0.5\%$  상승(전년동월대비  $2.4\%$  상승)
- 2024년 5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전년동월대비  $2.2\%$  상승),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전년동월대비  $3.3\%$  상승)
  - \* 국내에 공급(국내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 한국은행, 「2024년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6.27)

- 2024년 6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5.7\*로 전월대비 2.8p 상승하였으며, 2024년 7월 전망 CBSI는 93.1로 전월대비 1.3p 상승
  - \* 전산업 CBSI 추이 : 87.8('24.2)→ 89.4(3)→ 91.3(4)→ 92.9(5)→ 95.7(6)
- (제조업) 2024년 6월 CBSI는 97.4\*로 전월에 비해 3.0p 상승하였으며, 2024년 7월 전망 CBSI는 95.1로 전월에 비해 1.4p 상승
  - \* 제조업 CBSI 추이 : 91.2('24.2)→ 91.1(3)→ 93.4(4)→ 94.4(5)→ 97.4(6)
- (비제조업) 2024년 6월 CBSI는 94.3\*으로 전월에 비해 2.5p 상승하였으며, 2024년 7월 CBSI는 91.7로 전월에 비해 1.3p 상승
  - \* 비제조업 CBSI 추이 : 85.0('24.2)→ 88.1(3)→ 89.8(4)→ 91.8(5)→ 94.3(6)

####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 2024년 6월 업황BSI는 74\*로 전월대비 1p 상승하였으며, 2024년 7월 업황전망BSI는 72로 전월대비 2p 상승
  - \* 업황BSI 추이 : 68('24.2)→ 69(3)→ 71(4)→ 73(5)→ 74(6)
- (제조업) 2024년 6월 업황BSI는 78\*로 전월에 비해 4p 상승하였으나, 2024년 7월 업황전망 BSI는 75로 전월에 비해 1p 하락
  - \* 제조업 업황BSI 추이 : 70('24.2)→ 71(3)→ 73(4)→ 74(5)→ 78(6)
- (비제조업) 2024년 6월 업황BSI는 71\*로 전월에 비해 1p 하락하였으며, 2024년 7월 업황 전망BSI는 70으로 전월에 비해 2p 하락
  - \* 비제조업 업황BSI 추이 : 67('24.2)→ 68(3)→ 69(4)→ 72(5)→ 71(6)

### ◆ 한국은행, 「2024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6.25)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6월중 100.9로 전월(98.4)대비 2.5p 상승
  - \* 소비자심리지수(CCSI) :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 101.9('24.2)→ 100.7(3)→ 100.7(4)→ 98.4(5)→ 100.9(6)
-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71)는 전월대비 4p 상승하고 향후경기전망CSI(80)는 전월대비 1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146)는 전월대비 1p 하락, 임금수준전망CSI(116)는 전월과 동일
-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6월 3.0%로 전월대비 0.2%p 하락
  - ※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3.0('24.2)→ 3.2(3)→ 3.1(4)→ 3.2(5)→ 3.0(6)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57.8%), 공공요금(53.0%), 공업제품(24.8%) 등 順
- (물가인식)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인식' 은 6월 3.7%로 전월대비 0.1%p 하락
  - ※ 물가인식 추이(%) : 3.8('24.2)→ 3.8(3)→ 3.8(4)→ 3.8(5)→ 3.7(6)

## 2. 노사 동향

### ◆ 경총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 촉구

- 경총은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6. 25)’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공청회(6. 26)에서 반(反)시장·반(反)기업 법으로 우려되고 있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문제점 지적
  - ※ 야당은 지난 6. 20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3건(① 박해철 의원안, ② 김태선 의원안, ③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안)을 국회 환노위에 단독으로 상정
- 경총은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시켜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국가경제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 표명
  - ※ 개정안 통과시 문제점 : ①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 행위 가능, ②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해 민법상 계약의 실체 부정
- 또한,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상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6. 24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재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 이정식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언급하며, 개정안 통과시 파업 만능주의에 따라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
- 반면, 노동계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대기업 하청업체 조직화, ▲원·하청 노사관계 문제 이슈화 등 노조법 개정 추진 동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어 노사관계 혼란 증가 우려

### ◆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둘러싼 논의 난항 지속

-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6. 25)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 강조
  - 경총은 최저임금의 누적된 고율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최저임금의 시장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은 현(現)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
  - 이에 따라 경총은 올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시

켜야 한다는 입장 피력

- 반면,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구분적용 폐지 등을 요구하며 7. 4 공동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6.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불법 점거 농성 진행
  - ※ 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로비를 점거해 경찰은 퇴거불응 혐의로 조합원들을 현행범 체포
-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6. 27)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 수준 관련 노사 최초 제시안이 제출될 예정

#### ◆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주요 노동 의제 관련 사회적 대화 본격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이하 '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2. 6)에 따라 1개의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 위원회 발족 완료
  - ※ 특별위원회 :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5. 30 발족),
  - ※ 의제별위원회 : ① 일·생활 균형위원회(6. 21 발족),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6. 27 발족)
- 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3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산업전환 관련 논의를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
  - 경영계는 산업전환 의제에 대해 유연화된 근로관계 규율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고용안정과 전환배치 및 훈련지원 등에 대한 논의 요구
- 의제별 위원회는 7월부터 근로시간,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주요 노동 의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 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 의제 : ①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②건강권 보호, ③ 일하는 방식 개선 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의제 : ①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②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등

#### ◆ 정부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관련 근로감독 진행

- 고용부는 6. 25 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이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차별 근절 관련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 ※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시정 관련 근로감독 진행
-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미지급한 17개 사업장 적발(642명에 대해 4억3천8백만원 상당의 금품 미지급)
- 또한, 고용부는 7월 한 달간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차별 관련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이어나간다는 계획





#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청년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li> <li>◦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li> <li>◦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li> <li>◦ 2년후 : 1인 480만원</li> </ul>	716-3424
2	뿌리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역 뿌리기업 중 청년,신중년, 중장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li> <li>◦ 만 35세 ~ 49세 채용 시</li> <li>◦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li> </ul>	716-3503
3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인 이하 중소기업</li> <li>◦ 만 40세 이상 재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li> </ul>	609-8964
4	청년성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역 신규 인력채용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li> <li>◦ 신규 채용기간: 최근 1년 이내</li> <li>◦ 청년층 연령: 만 15세~39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li> </ul>	654-3427
5	북구 굿잡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광역시 및 북구 일대 중소기업</li> <li>◦ 광주광역시 구직자(취업준비 청년, 여성, 중장년 등)</li> <li>◦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혹은 지역 인재를 구인하는 사업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일자리 동영상 제작</li> <li>◦ 취업매칭 지원</li> <li>◦ 고용부 워라벨 인증지원</li> </ul>	654-3427
6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인 미만 제조업 무상 컨설팅 지원</li> <li>◦ 회원사 산업안전 매뉴얼 제작시 전문가 자문·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li> <li>◦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li> </ul>	716-3501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